



술취한 코끼리 길들이기

수잔 브라흐마 (류시화 옮김)

- 코끼리를 살 돈을 모으다가 일생의 시간을 다 보내고,
코끼리 사료를 마련하느라 허덕일 것이며,
코끼리와 단 한번도 즐겁게 노닐 적이 없을 것이다.
생의 마지막에 이르러서는, 코끼리 때문에 자신이 단 한순간도 행복한 적이 없었음을 깨달을 것이다.
- 죽음의 관점에서 보면 삶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위는 바보같은 짓이다.
- 욕망의 자유가 아니라 욕망으로부터의 자유.
- 온갖 두려움과 슬픔은 마음으로부터 오는 것이다.
- 1000개의 벽돌 중 잘못 쌓은 2개.
어느날 방문객 왈 "998개의 잘 쌓은 벽돌이 보인다."
- 삶에서 **잘못된 것이라고 여기는 것들**은 어쩌면 이곳에서 보내는 시간을 즐겁고 풍요롭게 해주는 '**특별한 것**' 일지도 모른다.
- 완벽한 상태가 아니더라도 정원을 즐기는 지혜. 지금까지 한 것은 그 자체로 완성된 것. 정원에서 평화를 누리는 법을 터득하면 언제 어디서나 평화를 발견할 수 있다.
- 어둡다고 불평하는 것보다 촛불을 켜는 것이 더 낫다.

- 내가 기억할 수 있는 만큼 오랫동안 함께 지내온 나 자신이며,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했든 상관없이 내마음의 문은 나에게도 열려있다.
- 결혼 서약을 할 때 두 사람은 관계를 뛰어넘어 **한 존재**가 된다.
- 우리는 환상을 사랑한다.
- 아잔차의 점괘 → “당신의 미래는 불확실합니다.”
- 그 시간을 재미있게 보내기로 마음먹으면 긴장이 사라진다.
- 입을 벌려야 지혜의 알약을 넣어줄 수 있다.
- 대중앞에서 강연을 두려워하는 승려 → 2시간 강의를 4번 연속 시키니 두려움이 사라져..
- 내려놓음 = “안으로 들어오라”
- 행복에 집착할 때 그것은 고통에 집착하는 것과 같다. 행복할 때 조심하고, 고통스러울 때 실망하지 마라. 그것들은 똑같다.
- 화 : ‘분노를 먹고 사는 악마’
- 갈곳이 아무데도 없음을 깨달을 때, 우리는 달아나는 대신 문제와 마주한다.
- **칭찬해주고 긍정적으로 키워주지 않으면** 좋은것이라 해도 오래가지 않아 시들어 버린다.
- 칭찬은 행복을 가져다주고, 비난은 불행을 가져다 준다.
- **매일아침 처음보는 나 자신에게 거울을 보며 미소지어 주어라.**
- 소풍 = ‘부정적인 마음’을 몸에 지니고 다니지 마라.
소풍을 매일 치우면 향기로운 꽃향기를 낼 수 있다.
- 바닥이 뚫린 쓰레기통이 되어라.
-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는, 아무것도 하지 말라.
- **빗자루질을 할 때는 온 존재를 바쳐 빗자루질을 하라.**
- 엉덩이가 가려운데 머리를 굽고 있어.
-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인가? → 지금 이순간.
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? → 당신 앞에 있는 사람.
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? → 보살핌과 배려.
- 죽음 앞에서 소리없이 눈물을 흘리는 소. 그 눈을 보는순간 채식주의자가 되었다.
- 마음속 신문을 내려놓지 않으면 광활한 자연을 누릴 수 없다.

- 나이가 많아질수록 강해지는 신체기관 : '입' → 말이 많아진다.
- 오케스트라 : 각자가 음악의 거장. 조화를 이루는 법을 배웠기에 아름답다.
- 아무것도 되려고 하지말라. 앉을때는 앉으라. 걸을때는 걸으라. 아무것도 붙잡히지 말고 붙잡지 마라.
- 아무것도 원하지 않을때 비로소 자유를 만끽할 수 있다.
- 원치않는 곳에 있는 것은 감옥에 있는 것과 같다. 바꾸려면? 그곳에 머물기를 원하면 된다. "욕망으로 부터의 자유"
- 깨달은 자는 화를 내지 않는다.
- **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그 일 자체가 아니라, 그 일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다.**
- "그대는 회복되던지 아니면 죽을 것이다." (병문안 가서 아잔차가 환자에게 한 말)